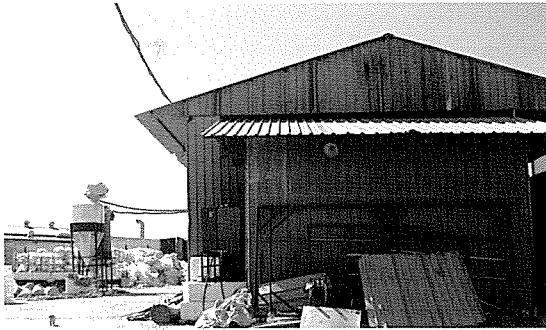




삼도그린 한장희 대표

대전 충청지역 건축단열재 스티로폴 재활용의 원조

- 신탄진C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 1,400평 부지의 스티로폴 적재장소 확보



스티로폴 재활용 전문업체인 삼도그린(한장희 대표, 전화번호 042-933-4544)은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신탄진C 부근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 때문에 대전충청지역의 스티로폴 재활용 특히 건축단열재 처리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삼도그린이 1995년 대전충청지역에서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을 시작한 이후 재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건축단열재 처리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다. 삼도그린 한장희 사장이 단기적 영업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비전으로 건축단열재 발생업체와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관

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활황이던 2,3년 전에만 하더라도 건축단열재를 포함한 스티로폴 70톤/월 물량을 폴로 생산할 만큼 대전충청지역의 안정적 처리처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삼도그린은 현재 스티로폴 적재에 충분한 공간인 1400평 넓은 부지의 공장에 감용기(400kg/h) 1대와 파쇄기 3대 등을 설치하여 잉고트와 폴을 합해 월 35톤을 생산하고 있다.

스티로폴 재생업체의 난립과 스티로폴 발생량의 감소로 삼도그린 역시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스티로폴 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만 자신의 브랜드로 만든 폴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

충청남도 예산이 고향인 한사장은 1994년부터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현재까지 고향지역의 환경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스티로폴 재활용업체는 가격싸움에 열중하기보다는 업체별 기술노하우를 축적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할 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장희 사장은 힘주어 말한다.

